SK하이닉스, '한국IR대상' 기업부문 대상 수상

경영 투명성 높이고 시장과 소통해

2018 한국 IR대상 시상식에서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SK하이닉스 경영지원담당 이명영 부사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한국IR협의회 주관 '2018 한국IR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IR대상은 IR활동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IR우수기업 및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국내 기업들의 IR활동 활성화와 올바른 IR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IR협의회에서 2001년부터 제정, 시상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SK하이닉스는 회사 경영 활동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 및 시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K하이닉스는 'IR 투자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자 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 타겟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된 IR활동을 해왔다. 미팅과 적극적인 국내외 IR로드쇼를 통한 산업 이해 증진 및 투자유치 노력 등으로 최근에는 장기투자 성향 글로벌 대형 기관의 수와 지분율이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시 제출에 성실하게 임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 활성화에도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Advertorial Corner

에버랜드 야외 정원서 바베큐 페스티벌

에버랜드 조리사들과 직원들이 음식문화축제인 '레드앤그릴 바베큐 페스티벌'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에버랜드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에버랜드가 야외 정원에서 즐기는 음식 문화 축제인 '레드앤그릴 바베큐 페스티벌'을 오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레드앤그릴 바베큐 페스티벌'은 에버랜드가 지난 2016년부터 3회째 선보이는 가을 대표 음식 문화 축제로, 올해에는 멕시코·독일·미국 등 세계 7개국의 바베큐 메뉴 20종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 스타일의 바베큐를 함께 맛볼 수 있는 퓨전 메뉴 '멕시코리아 바베큐 빅 플레이트', 베트남 쌀국수와 숯불구이를 함께 먹는 '분짜', 그리고 독일식 족발로 유명한 '바베큐 학센' 등은 이번 축제에서 꼭 맛봐야 할 추천 메뉴다.

축제가 펼쳐지는 장미원에는 60만 송이의 가을 장미가 만개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을 낭만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안병도 기자

지난 19일 열린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박인비 골프콘서트'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KB금융 전용 서비스 공간 'KB 스퀘어'가 탑재된 금융 특화 스마트폰 '갤럭시KB스타'를 박인비 선수에게 전달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고객 초청 박인비 골프콘서트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소재한 골드레이크 컨트리 클럽에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박인비 골프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골프콘서트는 세계 최초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골프 여제 박 선수와 고객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KB국민은행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 최우수 고객 108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골프 대회 뿐만 아니라 박 선수의 퍼팅 비결을 전수받는 퍼팅레슨 및 박 선수와 남기협 코치가 직접 홀을 이동하며 필드 코칭을 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박 선수가 골프를 시작하게 된 어린시절 추억과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박인비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고객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대목동병원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고 서울 서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재지정 평가는 시설, 장비, 인력 부분에서 1차 현장 평가, 2차 서면 평가가 진행됐으며 사업계획서 이행실적도 검토됐다. 이번 재지정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효하다.

이대목동병원은 2016년 7월부터 서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진료부 내 재난의료지원센터를 두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상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는 등의 지역 응급의료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9월 21일 (음 8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60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주의하고 사람조심. 7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놓은 법이니 절망은 금물. 84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과하게 한다.

소 49년생 지는 잎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처량. 61년생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 73년생 행복이 주변에 있으니 이웃과 친하게 지내라. 85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호랑이 50년생 얼룩진 옷은 벗어서 빨아야 한다. 62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고난은 참고 견뎌라. 7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86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토끼 5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63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자. 7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 가라. 8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날이니 좀 서글프다.

용 52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 64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76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88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은 오늘 마무리.

뱀 53년생 자식이 나보다 나으니 기쁜 일. 6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77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 8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말 5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6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78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9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양 55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7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친구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다. 7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9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원숭이 56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68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해서 뿌듯. 80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 준다. 9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때.

닭 57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 6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뿐. 81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하다. 93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개 5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 마음을 다스려라. 70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82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 기쁘다. 94년생 명예는 높아지나 실속은 그다지 없다.

돼지 59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면 내 흠도 드러난다. 71년생 바람이 분다고 모두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83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95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궈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4	5				1
				1		7	4	2
9		8			1		7	
		2		8		6		
	4		6			2		5
2	5	4		9				
1				3	6	5		

						6		1
	5	1						
	6		3				8	
		8			5	1		
					9		6	4
			1	3		2		
9			6		3	5	7	
		5		2		8		
6				4				9

스도쿠 정답

9	1	3	8	4	5	7	2	6
6	4	8	7	2	9	5	3	1
2	7	5	4	6	1	3	9	8
8	5	2	3	1	6	9	4	7
3	9	1	5	7	4	8	6	2
5	8	9	1	3	7	2	6	4
4	6	7	2	9	8	1	5	3
1	3	6	9	5	2	4	7	8

7	2	9	4	5	8	3	6	1
6	8	5	9	1	3	7	4	2
9	6	8	5	2	1	4	7	3
5	7	2	3	8	4	6	1	9
3	4	1	6	7	9	2	8	5
2	5	4	1	9	7	8	3	6
1	9	7	8	3	6	5	2	4
8	3	6	2	4	5	1	9	7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기도의 방법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취직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다 시피 한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돼 가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걱정이 크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점점 하강곡선을 긋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몹시 걱정이다. 그래도 얼마 전 손녀딸이 태어났다며 이름을 지으러 온 L여인은 아들이 결혼한 지 6년 만에 경사를 보았다. 몹시 기뻐하는 것을 보니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것 같아 역시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내어 놓는 아기의 연월일시를 보아하니 자못 걱정이 드는 구석이 있었다. 태어난 해가 괴강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태어난 날의 지지가 일간에 대해 상관인데다가 태어난 시에는 원진살이 함께 하고 있었다. 십이운성(十二運星)으로서는 일주는 건 록에 해당됐지만 태어난 해와는 과숙살(寡宿殺)이 있다. 상관과 과숙살이 함께 있다면 이는 여자사주로서는 즐겁게 보지 않는다. 게다가 남편 자리를 나타내는 관성의 오행이 아예 없다. 옛날처럼 통혼 전에 사주를 맞춰보는 전통이라면 기피하는 여자사주에 해당되기 에 설성가상의 경우가 된다. 다행히 요즘은 시절이 바뀌어 여자도 남자와 다름없는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으니 과거의 전통적인 잣대로 운명을 논할 수는 없다. 자연스런 시대조류가 아닐 수 없다. 남자든 여자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 그에 합당한 기회와 처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가 된 것은 과거처럼 남자의 삶에 종속되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게 된 것이다. L여인의 손녀딸은 과거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걱정이 되긴 하지 마는 이름으로 사주기운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다가오는 대운과 세운의 운기를 살피면서 기도와 방편을 해준다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현 시대에 맞는 커리어우먼이 될 것이다. 다만 일주에 보이는 현침살(懸針殺)은 그 작용력에서 도화살과 유사하다고 보이고 있다. 도화도 열 두 도화가 있어 사주가 좋게 흐르는 경우에는 만인에게 호감을 사는 인기인이나 유명인의 직업에 해당되지만 혹여 관살이 혼잡하며 지지에서 충을 맞는 사주라면 여자의 경우 흔히 말하는 접대부 분야의 서비스업종에서 활동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주에 건 록이 있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성 싶었다. 이름을 잘 짓고 운을 잘 살펴서 인생설계에 잘 참고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